

# 기부 선진국, 미국의 나눔교육

## AFP의 청소년 나눔교육(Youth in Philanthropy: YIP) 사례를 중심으로

- I. 미국 기부문화에 대한 짧은 소개
- II. 미국 기부문화의 현황
- III. 성공하는 청소년 나눔교육 프로그램
- IV. 미래 방향



## 기부 선진국, 미국의 나눔교육 AFP의 청소년 나눔교육 (YIP)의 사례를 중심으로 - 캐서린 폴크 (Katherine Falk)

Chair, AFP(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Youth in Philanthropy (YIP) Task Force

공인모금전문가 (CFRE) , Principal, Falk Associates, 비영리기관

모금 컨설턴트 (Nonprofit Development Consultant)

캐서린 폴크(Katherine Falk)는 비영리 모금 컨설턴트로서 1978년부터 미국과 유럽의 여러 단체가 '조직화된 모금사업', '장기 전략 계획', '거액의 기부금 획득 및 고액 모금 캠페인 기획과 관리' 프로그램 수립 프로젝트에 개입해서 일했다. 그녀의 고객은 국제기구부터 예술,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 지역 발전과 뉴저지 지방 프로젝트까지 방대하다.

캐서린은 국제 모금전문가 협회(AFP)에서 “청소년 나눔교육”(Youth in Philanthropy Task)분과와 “뉴저지 지역 나눔교육 위원회”(New Jersey's innovative Youth In Philanthropy(YIP))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는 NJ-YIP에서 12년 전에 첫 번째 교사 자원 가이드 및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수 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교육 부문 상을 수여받고, 그 후 NJ-YIP의 프로그램이 2년 기한의 특별 프로젝트의 자격으로 뉴저지 교육위원회의 핵심 커리큘럼 기준으로 포함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맡아왔다. 그녀는 2006년 11월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개최될 청소년 기부 자선 활동에 대한 전국회의의 기획을 맡고 있다.

캐서린은 2004년에 AFP-NJ로부터 12년간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청소년 나눔교육 부문에서 지도자상을 받았고, 1997년과 2000년도에는 모금전문가 부문에서 의장상을 수상하였다. 그녀는 AFP-NJ를 포함한 몇 개의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활발한 자원활동가이기도 하다.

캐서린은 인디애나 대학교 내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부자선 분야 지도자 코스를 졸업하였으며, 청소년 나눔 활동과 관련하여 이 연구소에서 수여하는 첫 번째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뉴욕에 있는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모금 관리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다녔으며, 그 이전에는 이스턴에 있는 Lafayette College에서 영문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캐서린은 2002년 12월 Jossey-Bass에서 발간된 책 "CREATING TOMORROW'S PHILANTHROPISTS - Curriculum Development for Youth"의 한 장(Chapter)을 썼으며, Fundraising Success Magazine부터 AFP's Advancing Philanthropy Magazine, 뉴스레터 등 수많은 청소년 나눔교육 관련 매체에 글을 게재하였다.

## 기부 선진국, 미국의 나눔교육 AFP의 청소년 나눔교육 (Youth in Philanthropy) 사례를 중심으로

멋진 나라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만난 새로운 벗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아름다운재단이 박원순 총괄상임이사와 모든 동료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많은 일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빙코리아 심포지엄을 주관해서 진행한 아름다운재단의 홍주은 간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미국의 청소년 대상 나눔교육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 강연의 내용은 성공적인 나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으며, 교사와 학교가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했으며,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실제적인 사업의 예시, 제 경험에 대한 소개까지 함께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나눔교육은 이제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처음에는 풀뿌리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여세와 인기를 몰아 주류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인들은 이제 막 사과의 전환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진보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청소년 나눔교육 운동에 대한 우리의 국민의 배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강연의 목적을 위해,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기부문화에 대한 짧은 소개
- 미국의 기부문화의 현황
- 성공하는 청소년 나눔교육 프로그램
- 미래의 방향

청소년 나눔운동의 시기는 박원순 변호사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6년 동안 한국의 나눔 문화 성장에 쏟은 노력의 시간과 아름다운재단이 이룬 놀라운 성과가 나타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식 전환 캠페인, 1% 나눔 캠페인, "재단 안의 재단"이라 불리는 공익 기금 조성 프로그램,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에 기부문화를 만들거나, 혹은 전통적인 한국의 모델로부터 "가족의 도움에 더해 상호 도움의 바람직한 시스템"을 재구성함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의 이룩한 지난 6년의 놀라운 성과는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눔 운동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아름다운재단이 추구하는 나눔의 사회상이 우리의 미래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특히 나눔교육에 있어서 각 나라의 사고와 시각을 교환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추진한 아름다운재단의 선견지명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 마디만 하자면,

제가 미국에서 동료들과 청소년 나눔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보다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방법에 있어서 국제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 다른 대륙에서 나눔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눌 것이라고는 꿈도 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인식되는 신 개척 분야에서 함께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나눔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다루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 특히 911사태와 쓰나미, 태풍 카트리나, 워렌 버핏의 기부 이후 이러한 영역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미국의 청소년 나눔운동의 역사는 2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미국 나눔문화의 역사는 1961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곤구제법이 발표되고 미국법의 기반이 된 자선적 사용 조항이 발표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된 자선적 목적의 기부금을 낸 기부자는 1638년에 존 하버드라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는 도서관과 그의 재산의 절반을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캠프리지에 새롭게 세운 학교에 기부했는데, 이 학교가 지금의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에 지난 4세기의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을 삽입했는데, 그것은 알렉시스 토크빌의 기념비적인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 부터 제인 아담스와 시카고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헐 하우스(Hull House), 그리고 오늘날의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까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박원순 변호사가 1991년에 영국의 런던정경대학에서 아름다운재단을 구상하고 있던 그 시기의 바로 직전까지 되돌아간다면, 그 때가 바로 미국에서 청소년 나눔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말에, 미국에서 독보적인 나눔문화 관련 연구조직인 인디애나 대학의 기부문화연구소가 기존의 고액 기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자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세대간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우려의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걱정은, 과연 새로운 상속자들이 그들의 나눔의 전통을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미덕이 제대로 계승될 것인가?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만큼 관대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단지 자선적인 목적만으로 기부 행위를 선택하긴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더 깊게 들어가면, 그 결론은 과연 나눔문화 운동과 비영리 분야가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는 세대간 전달되는 부의 액수를 약 10조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치는 점차 45조, 55조, 그 이상, 그리고 마침내 100조 이상을 경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 답변의 일환으로,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과거에는 전국모금가연합(NSFRE)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모금전문가협회(AFP)라고 불리는 단체가 처음으로 단체의

청소년 나눔운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모금가연합(NSFRE)는 1060년에 창설된 단체로, 이 단체를 창설한 사람들은 윤리강령과 전문적인 실행의 기준에 따라 모금을 하나의 훈련되고 헌신된 직종으로 보는 모금전문가들이었습니다. 2001년에 전국모금가연합(NSFRE)는 미국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며, 전문직업으로서의 모금전문가라는 특성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해 명칭을 모금전문가협회(AFP)로 개칭했습니다.

오늘날, 모금전문가협회는 미국 전역과 캐나다,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자카르타에 걸쳐 189개의 지부에 약 28,000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남미와 아시아, 호주와 유럽에 개인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회원들은 애드보커시, 연구,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문화를 진보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모금전문가들의 개발과 성장을 독려하고, 모금 직종에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모금전문가협회(AFP)는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모금전문가협회(AFP)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시아의 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2007년 연말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중앙지부에서 각 지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모금가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2주 전에 네덜란드에서 조인된 국제 도적 현장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모금전문가협회(AFP)의 첫 번째 청소년 나눔운동 프로그램은 각 지부가 20명 정도의 청소년 그룹을 발굴해서 그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모금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실제로 모금을 시작하면, 그 모금액에서 1:1의 비율로 모금전문가협회(AFP)에서 매칭기부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94년에, 나의동료이자 공인된 모금전문가인 마가렛 맥린은 당시에 뉴저지 지부의 지부장이었는데, 그녀는 뉴저지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테스트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나눔에 대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글이나 포스터로 표현을 하면, 그 중에서 열정이 보이는 작품은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은행으로 꼽히는 뱅크 오브 어메리카(Bank of America)가 이 사업의 초기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뉴저지 지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열렬한 호응을 받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친절과 베푸는 선행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생활철학으로서의 나눔과 그 나눔이 어떻게 친절한 행동을 뛰어넘는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교육적인 자료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교사자원가이드(Teacher Resource Guide)라고 제가 즐겨 부르는 우리의 첫 번째 '커리큘럼'의 탄생을 지도, 감독해줄 것을 부탁해왔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4학년 교실 전체, 또는 동학년의 소그룹 단위들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나눔을 공부하고 또한 나눔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우리가 완성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 번째 해에, 우리 중 몇 명은 경쟁적 요소가 우리의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랐으며, 우리는 병원에서 봉사하는 프로젝트 제안이 양로원이나 미술 박물관을 위한 제안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교육에 중심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뉴저지(New Jersey)의 YIP 프로그램은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34,000이상의 학생과 수백 명의 교육자들 또한 우리의 프로그램을 거쳐 갔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모든 우리 멤버들이 나눔을 위해 봉사하고, 윤리강령(Code of Ethical Principles)이나 모금의 원칙(Standard of Professional Practice)과 기부자권리(Donor Bill of Rights)에 속지하는 자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의 최초 법인 기부자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뉴저지주의 핵심교육과정기준(State's Core Curriculum Standards)이 개정될 때, 우리가 뉴저지 교육부(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와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003년과 2004년에 기부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나눔을 사회 교과와 체육 교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핵심 분야에 성공적이었고, 뉴저지주의 인성 교육 지도자들과도 가깝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뉴저지 YIP 프로그램은 매년 교사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의 등록이 진행되면서 시작됩니다. 교사들이 하루 동안의 연수와 지속적인 YIP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뉴저지 교육부(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와 Seton Hall 대학의 비영리 부문자원기관(Nonprofit Sector Resource Institute)으로부터의 수수료증을 제공해 줍니다. 훈련은 교사들에게 동료들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머리를 맞대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알려줄 수 있는 뉴저지주 전역의 비영리조직의 대표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강연자를 각 교실에 보냅니다. 훈련된 강연자들은 학생들의 멘터 역할을 하고 학년 말에 학교로 돌아가 학생 개개인에게 성과에 대해 축하해줍니다. 강연자들은 학생 개개인에게는 수수료증이 수여하고, 학교 도서관에 선물과 수여하고 그 외의 다른 보상들도 제공하는데 이는 우리의 자원봉사자인 교사그룹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보상을 살펴보면 주지사의 성명서로부터 명판까지 등 다양했습니다. 우리는 학급들과 학교의 좋은 성과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 학교가 그들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1년에 두 세가지의 나눔 프로젝트를 행하는 학교와도 함께 일하고 있고, 매일매일 나눔에 관련된

활동을 행하는 학교와도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에 나눔을 반영하고 있는 학교와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사례는 우리의 생각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유니언시의 워싱턴 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의 학교입니다. 제 작년, 국제 AFP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나눔운동상(Youth in Philanthropy award)을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초등학교는 나눔을 향한 학교의 노력과 놀라운 결과로 어려운 경쟁 속에서 상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는 32개의 프로젝트들을 완성시켰고, 대도시 중심부 저소득층 구역의 600명의 학생들은 미국종양협회(American Cancer Society)를 위해 2만불을 모았습니다. 지난 6년간, 그들은 미국종양협회를 위해 10만불 이상의 기금과 다른 분야를 위해 추가적인 기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혁신적이었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종이에 특히 부모님을 위해 조그마한 그림들을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선물을 위한 포장지로 만들어, 특히 부모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워싱턴 초등학교의 또 다른 정기적 프로젝트는 사랑의 줄넘기(Jump Rope for Heart)입니다. "사랑의 줄넘기(Jump Rope for Heart)"는 학교가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국가적 기금마련 기회로 학생들은 매년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은 퇴역군인을 위해 카드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도우며,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방에 가득찰 만큼의 장난감을 모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바틀(Bartle) 학교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단체(Metropolitan Opera Company)와 워크샵을 갖고, 그들 자신의 오페라를 쓰고, 연출하고 공연했습니다. 그들은 표를 판매했고, 그 수익으로 암과 혈액병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관(Institute for Children with Cancer and Blood Disorder)에 전했습니다. 프렌치타운 학교(Frenchtown School)는 전문적 비영리 극장 업체와 함께 일하고 그 표 매상 수익을 그들을 코치한 연출가와 학교근처의 양로원에 보냈습니다.

바틀 학교는 또한 양로원을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매주 요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그곳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을 씁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그들이 이야기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SeniorZine"이라는 특별한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양로원을 주기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YIP는 그들의 프로젝트가 가장 효율적이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언급한 프로젝트에서는, 우리는 학생들이 노인들이 잘 못 듣고 잘 보지 못할 수 있으며 걷기 어렵거나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집단 감수성 훈련을 제공하는 교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걸을 때의 고통과 잘 보지 못할 때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의 신발에 자갈을 넣고 걷을 것과 안경에 크림을 바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예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학교인 클라라 바튼(Clara Barton)은 그들의 청소년

나눔 프로그램(Youth in Philanthropy Program)으로 뉴저지교육부의 “최고의 실천상(Best Practice)”상을 받았습니다. 7년 전에 그들은 그들의 연간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폐 전문 병원인 소아과 건물을 입양했는데 이 병원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해에는, 두 수업의 60명의 학생들이 네 그룹으로 나뉘어 환자들을 위한 커다란 아름다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글쓰기 능력을 사용하였고,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그들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저자와의 만남” 코너가 있고 앞부분에는 특별한 글꼴을 이용해서 “헌정(dedication)” 코너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해에는 읽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출판사에 설득력 있는 편지를 써서 각 한 종류의 책을 두 권씩의 책들을 기부 받았습니다. 그들은 테이프 녹음기 회사에도 연락을 취해, 테이프와 녹음기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들은 테이프에 책을 읽어 녹음했고, 새로운 책, 테이프와 녹음기를 소아과 건물에 기증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교사들은 4학년 학생 중 미술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지난번 수업을 통해 병원에 기부된 책들을 읽고 삽화를 그려 넣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각 각의 삽화는 뒷판이 덧대어지고 프레임에 넣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 아이들은 베개를 만들고 캔버스 가방을 물감으로 장식하고 그들이 만든 선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는 클라라 바튼 학교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소아과 건물의 벽은 클라라 바튼의 4학년 학생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미 전역, 국가, 세계적으로 나아가 학생에게까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우리 프로그램 최우선의 목표는 이러한 수업들을 유지하여 해가 지나면서 결과를 축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많이 가지지 못하고 기부의 끝자락에 서있는 아이들을 – 아무리 그들이 어리고 기부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하더라도 – 그들의 지역사회와 그 이상의 영역까지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과 힘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YIP 프로그램이 특히 위기에 놓여진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나눔의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종교적 입회, 또는 미국에서는 걸 스카우트나 보이 스카우트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도 – 그들과 정반대인 특권 없는 가난한 아이들만큼이나 – YIP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대와 만족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종종 표현합니다. 또한 YIP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기회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자주 말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자선단체에 재정적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자선의 실천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생각해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YIP 프로그램은 부모들까지도 교육되는 확산 효과를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확산 효과는 미국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부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어느 누구나 자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수백만 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자선가들도 그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선가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듯 합니다.

저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몇 몇의 차트와 설명을 파워포인트에 실었습니다. 슬라이드들은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미 이 중 몇몇과 친숙하며, 다른 몇몇과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켰고 이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부는 매년 일 년이 지나 연구결과로 검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월에 나온 2005년의 숫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부금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26,028백만불 (\$260.28 Billion) 정도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업, 재단, 그리고 사람들이 자선의 목적으로 남기는 유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총생산의 2%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만나는 대부분 평균 미국인들은 기부행위 대부분이 재단이나 기업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개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Warren Buffet)의 엄청난 금액의 기부를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미국인들도 네 개의 그룹-개인, 기업, 재단, 사후 유증-의 기부금의 비율을 알게 되면 종종 놀라곤 합니다. 저는 미국사회 기부의 원천들과 이러한 기부금의 수혜기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원형차트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사회에 기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워렌버핏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기부한 기부금과 같이 거액의 기부금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의 기부금은 중요하지 않으며 기부란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들” 과 “우리” 를 구분하는 관점은 일사람들을 자선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나눔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부금이 매우 의미있다는 걸 깨닫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 진행해 온 전국적인 1% 나눔운동을 따라 시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청소년 나눔운동의 중요한 믿음 중 하나는 어린이들은 비록 어리지만 자신들의 지역 사회와 그 이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AFP의 스티븐 바슨(Stephen Batson) 의장은 국제화(Globalization), 다양성(Diversity)과 더불어 청소년 나눔운동(Youth in Philanthropy)을 AFP의 세가지 주요 전략의 하나로 주창하였습니다. 그는 청소년 나눔운동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는 인터넷에 자료실을 만들어 나눔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캐시 애거드(Kathy Agard,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의 설립인사)는 테스크 포스팀의 일원이었고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AFP지부들에 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나눔운동과 관련하여 특히 국내의 지부들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외부 자원들과 홍보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나눔운동이 AFP 전체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테스크 포스팀은 주로 AFP회원 대표들로 구성되어 왔었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몇몇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 프로그램의 대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테스크 포스팀의 멤버 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동료이자 인디애나 기부문화연구소의 드와이트 벌링게임(Dwight Burlingame) 박사도 포함되었는데 그는 일본에서 나눔교육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데릭 펠드먼은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9개국과 관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리그(League) 프로그램은 여러 학교들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나눔 활동들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학교들은 자신들이 기여하고 싶은 사회영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또다른 AFP 테스크 포스팀 회원 기관들은 Learning to Give, Community Partnerships with Youth, Inc., The 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of Indiana와 이 강의안에서 발견되는 기관들입니다.

대학교 수준의 나눔운동은:

모금전문가로 들어설 사람들이나 나눔운동에 관한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년 전에 AFP는 대학 지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대학 지부는 공식적인 AFP의 지부로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학생들이 운영합니다. 각각의 대학 지부는 성인 대상의 모금전문가협회 지부(AFP)가 하나씩 맡아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성인 지부의 회원들이 대학 지부 회원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금전문가협회(AFP)의 대학생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뿐만이 아니라, 미국 인간학 프로그램(American Humanics Program)이라고 전국의 대학과 비영리 단체가 모인 전국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그들의 사명을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단체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준비시키고 그 전문성을 인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인간학 프로그램(American Humanics Program)은 미국에 있는 약 75개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술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인간학 프로그램(American Humanics Program)은 비영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며,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젊은 인력자원을 원하는 비영리 단체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 주소 [www.humanics.org](http://www.humanics.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서두부터 나는 박원순 변호사와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6년간 해온 일의 성과

와 인디애나 대학의 기부문화연구소의 예상, 전국모금전문가협회(AFP), 그리고 NSFRE의 청소년 나눔교육운동의 시작에 대해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이제, 위 사건이 나타난 지 몇 년이 흐른 시기인 1995년에, 로신 미라벨라 박사와 나오미 위시 박사가 행한 새로운 연구를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로신 미라벨라 박사와 나오미 위시 박사는 세튼홀 대학교에 있는 지역공동체 연구소(The Center for Community Research and Engagement)의 공동 국장이며 켈로그 재단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은 ‘비영리 경영과 자선 연구 분야에서 대학 교육 프로그램: 10년의 회고 및 미래 추세에 대한 전망’으로, 미라벨라 박사는 곧 출판할 새로운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비영리 경영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학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현재 총 240개의 대학이 미국 전역에서 비영리 경영에 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진 전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장 최근의 정보를 편집함으로써 이러한 성장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보여준다. 본 필자는 사업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 분야의 성장을 각각 측정했다. : 대학원생(박사 포함), 학부생, 평생 교육, 그리고 비학점 코스.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필자는 미국의 비영리 경영 교육 프로그램과 나눔운동 관련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하여 전망할 것이다.”

미라벨라 박사와 그녀의 동료인 나오미 위시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학부 코스나 대학원 코스에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거나 진행한 적이 있는 대학교의 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는 구글에서 박사의 이름이나 세튼홀 대학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청소년 나눔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시간대에 도착했습니다. 4년 전에 인디애나 대학의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소의 연례 심포지엄의 주제를 청소년 나눔운동으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32개 주와 5개의 국가에서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 나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신나는 일이었으며, 이 운동의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도 우리는 과연 자선적인 베품과 봉사의 가치가 어떻게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터진 9/11 사건이야말로 아이들과 어른들 할 것 없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끌어낸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이 바뀌었으며, 또한 동시에, 유명한 나눔 센터에 관심 못지 않게, 청소년 나눔 운동의 선구자들은 이 사회가 진실로 아이들을 인간적이며 사회의 선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디스 니콜스 박사는 지금 여러분의 자료물에 들어있는 그 차트, 네 세대와 각 세대의 가치, 우선 사항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서술하기를 ‘나의 부모님 세대는 공공의 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민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태어났으며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나의 세대는 “우리”에게 집중한 것 보다 “나”에게 더욱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우리”라는 개념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지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주

디스 니콜 박사에 따르면, 이제 불과 몇 년 안에 더 젊은 세대는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와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범위는 인터넷 덕분에 글로벌한 규모를 가진다고 합니다.

밥 카터더는 미국에서 가장 모금 컨설팅 회사 중의 하나인 케첨의 대표이사이자 공인된 모금 전문가입니다. 그는 또한, 온라인 나눔문화 재단(E-Philanthropy Foundation)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밥 카터는 최근에 뉴욕에 있는 Harvard 클럽에서 세계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터넷의 출현이 개인 기부자의 시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고 말했습니다.

기부자들을 개인적으로 그들이 봉사하는 것과 연결하는 능력은 인터넷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재단 기부자들의 90%가 인터넷을 통해 기부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Bob은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이 20년 전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과 오늘날의 나눔문화가 온라인을 이용한 나눔문화운동과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에, 45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이 온라인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인 구제가 12억 5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이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자들에게 요청하고 기부금을 받는 모든 과정이 가능한 인터넷의 힘으로 30일 안에 모든 돈이 국제 적십자사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4년 전과 대비되는 오늘날의 “운동”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워싱턴 DC의 전국 인도적 회의(National Human Assembly)라는 단체 출신의 이브 캐츠가 기부문화연구소 심포지움에서 행한 중요한 연설 속에 이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인 인식에 눈을 뜨기 전에 먼저 놀아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비슷한 유의 놀이를 각각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모금전문가이자 모금전문가협회(AFP)의 청소년 나눔운동 부분 TFT의 선배 동료요 의장이었던 팻은 모든 청소년 나눔교육운동 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상부단체가 있어야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모금전문가협회(AFP)가 각각의 놀이를 통합하여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의 모임을 기획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이 모임을 기획했고, 마침에 플로리다에 있는 에디스 부시 자선재단의 도움에 힘입어, 다음주, 2006년 11월 12-14일에 우리 45명은 플로리다의 롤린스 대학의 비영리 경영 연구소에서 만나서 우리의 열정과 경험을 AFP가 소집한 나눔교육정상회의에서 풀어놓을 것입니다. 드와이트 벌링게임과, 나의 동료이자 선배인 팻, 그리고 제가 백서를 쓸 예정입니다. 저는 그 백서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으며,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나눔교육운동의 협력을 둘러싼 새로운 공동체 모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빙코리아 심포지움에서 초대받아 서울에서 한 이 귀중한 경험을 통해 다음 정상회의는 국제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나의 동료에게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Youth in Philanthropy, A Growing Movement

Katherine Falk, CFRE  
Chair, AFP' s Youth in Philanthropy Task Force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wonderful country. It is a highlight of my life to be here. I appreciate the graciousness of my new friends from the Beautiful Foundation. I am impressed with the work of Mr. Park Won Soon and all the colleagues that have made the Beautiful Foundation as successful as it has been over the last six years. A special thanks to Ms. Joo Eun Hong.

I have been asked to speak with you about K-12 Youth in Philanthropy (YIP) in America; successful programs and how they evolved, how teachers and schools are involved, the impact, practical examples of projects and my experiences.

Youth Philanthropy has become a Movement, with a capital "M" in America, something that started at a grassroots level, gained momentum and interest and is now increasingly being embraced by our mainstream culture. It seems we may have turned a corner in our thinking, in America. I would like to think so. I will seek to trace the evolution and provide a context for our consideration of youth philanthropy today.

To do so, the presentation will cover:

- A brief overview of American philanthropy;
- The current state of American philanthropy;
- Youth Philanthropy Programs that are achieving success;
- Future Direction.

The timing of the YIP Movement coincides with Mr. Park Won Soon' s efforts and the remarkable results achieved by the Beautiful Foundation. The Awareness-Raising Campaign, 1% Sharing Program, the Public Fund Raising Program "Foundation in Foundation", the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s Program and the Research Program are inspiring models. As you build a culture of giving in Korea, or rebuild from traditional Korea' s model the "good system of mutual support in addition to family support", your results demonstrate how it is possible to make a difference for a society as a whole and assure a future for your goals by stimulating active youth participation in philanthropy.

I want to thank you especially for your foresight in fostering the conversation of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hilanthropy education. In this regard, when we started, we thought about having a global impact in the ways our children could help those less fortunate around the world. We did not dream, however, that one day, we would be sharing ideas about teaching philanthropy on another continent. It is exciting to be pioneers together for the emerging and now acknowledged field.

There is much territory to cover related to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so much is happening with youth philanthropy especially since September 11, 2001, the Tsunami, Hurricane Katrina and Warren Buffet' s example. Our American Youth in Philanthropy Movement in its present form is less than 20 years old yet we have a rich tradition of philanthropy in the U.S. that dates back to 1601 and the Elizabethan Poor Law as the basis of public poor relief, and the Statute of Charitable Uses that is the cornerstone of Anglo–American law.

The first recorded philanthropic gift in America was made by John Harvard in 1638. He bequeathed a library and half of his estate to the newly–founded school at Cambridge, Massachusetts that was destined to become Harvard University; the university where Mr. Won Soon Park studied Law 354 years later.

I have included slides in the power point handout that offer highlights of the last four centuries from Alexis de Tocqueville' s book, Democracy in America through Jane Addams and Hull House in Chicago, our first American Settlement House for people – especially women – who did not have enough, to Andrew Carnegie to John D. Rockefeller to Bill and Melinda Gates and Warren Buffet.

But if we step back to just before when Mr. Won Soon Park was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where the idea for the Beautiful Foundation was born in 1991, our YIP Movement was just beginning. At the end of the 1980s,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the preeminent Center on Philanthropy in our Country, sounded an alarm about a tremendous transfer of intergenerational wealth that was starting to occur as older philanthropists leave their estates to their heirs.

One main concern was whether these heirs would carry on the philanthropic tradition in America. Had the values been passed down? Would the next generation be as generous—or even choose to donate to philanthropic causes at all? The ramification of these questions was whether our Philanthropic sector/Third Sector/ non–governmental sector would, in fact, survive.

The first projections at the end of the 1980s and the beginning of the 1990s put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wealth at about \$10 trillion. Then the projections went up to \$45 Trillion to \$55 Trillion and even beyond that, by some, to over \$100 Trillion.

In 1990–1991, perhaps in response,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FP), then called the National Society of Fund Raising Executives (NSFRE) launched its first Youth in Philanthropy (YIP) Program.

The National Society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NSFRE) was created in 1960 by professionals engaged in the art of raising money to establish fund raising as a profession practiced by trained and dedicated men and women who agree to abide by a Code of Ethical Principle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Practice. In 2001, NSFRE changed its name to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FP) to reflect the inclusion of members beyond the United States and the professional nature of the work.

Today,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FP) represents close to 28,000 members in 189 chapter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anada, Mexico, and Hong Kong, Singapore and Jakarta and individuals in South America, Asia, Australia and Europe.

Members work to advance philanthropy through advocacy, research,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he Association fosters development and growth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nd promotes high ethical standards in the fundraising profession. Headquartered in Alexandria, Virginia, AFP is the largest organization of its kind in the world.

AFP is working to support the chapters in Asia more effectively and proposes to provide chapter administrative support from a central base in Singapore by the end of 2007.

The Korean Fundraising Association has participated in and is a signatory to the International Ethical Statement that was agreed in Holland two weeks ago.

AFP's first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encouraged AFP chapters to identify a group of about 20 youth, to encourage them to choose a project and cause for which to raise money that the Association would match dollar for dollar.

In 1994, my colleague, Margaret J. McLean, CFRE, who was then president of the New Jersey chapter, decided to hold a contest for individual fourth grade students from all over the state of New Jersey to enter their ideas about philanthropy in an essay or poster. Fourth graders were chosen because they are

old enough to read and write but young enough to have zest and enthusiasm. Bank of America, a large bank in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e initial funding.

The New Jersey Chapter received a great response but when we looked at the entries, we saw that all the children understood kindness and giving but hardly any knew about philanthropy and how it extends beyond acts of kindness. We recognized that we needed to add an educational component to provide teachers with information. I was asked to oversee the creation of our first "curriculum" that I preferred to call a Teacher Resource Guide.

The second year, we extended the program to whole fourth grade classes or small groups within the grade to study philanthropy, choose a project and submit a proposal about the project they wanted to complete.

The third year, several of us felt that the contest component went against our purpose. We wanted everyone to win and could not, in good conscience, say whether a proposal for a hospital was more worthy than one for a senior home or art museum so we became a purely education based program.

Today, New Jersey's YIP program is for all elementary grades K-8 and over 34,000 students, as well as hundreds of educators, have gone through our program. Our special niche is that all our members are volunteers who work for philanthropic causes and who subscribe to a Code of Ethical Principle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Practice and the Donor Bill of Rights.

Bank of America, our original corporate donor that still provides support today, gave us grants in 2003 and 2004 to work directly with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when the State's Core Curriculum Standards were being revised. The goal was to see philanthropy infused into the curriculum in Social Studies and Comprehensive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We were successful with both core subjects and worked closely with the State's Character Education leaders.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n idea of how the program works, the New Jersey YIP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teachers, begins each year with registration for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We offer educators credit from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eton Hall University's Nonprofit Sector Resource Institute for our day-long trainings and for their ongoing participation in the YIP program. The trainings provide educators with information, encouragement and the chance to brainstorm with their colleagues and to meet



representatives from statewide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offer ideas for projects and how elementary school children can help their cause(s).

Next, we send speakers to each classroom. The trained speakers serve as mentors for the class(es) and go back to the school at the end of the academic year to celebrate the students' accomplishments, and their teachers who are our volunteer leaders, with individual certificates for each student, a gift for the school library and other recognition. In the past the recognition has varied from proclamations from the Governor to plaques. We provide publicity and wider recognition for the class or school's good work(s) as well.

We seek to help the schools participate at whatever level will work for them. We have schools that do a couple of philanthropic projects a year on one end of the spectrum to schools that do something philanthropic every single day of the school year, and where it is tied into the academic curriculum. Three case studies may make these ideas clearer.

Washington Elementary in Union, New Jersey is a K-4 school. The year before last, international AFP created a Youth in Philanthropy award for students in the K-12 category. Washington Elementary won for the K-12 category against stiff competition because of the school's focus on Philanthropy and their incredible results. Last year, they completed 32 projects and raised close to \$20,000 for the American Cancer Society with an inner city population of 600 students. Over the last six years, they have raised well over \$100,000 for the Cancer Society and additional money for other causes.

Their projects are innovative and span a wide range. The Principal, for example, has all the children draw small pictures on a large piece of paper. Then he has it made into wrapping paper for gifts and offers it for sale, especially to the parents. Another regular project at Washington Elementary is Jump Rope for Heart. "Jump Rope for Heart" is a national fundraising opportunity for schools to help people with heart disease and the students participate each year. They make cards for veterans. They help families in need and they collect rooms full of toys for children who are without. As a second example, Bartle School did a workshop with the Metropolitan Opera Company and then wrote, produced and staged their own opera. They sold tickets and gave the proceeds to the Institute for Children with Cancer and Blood Disorders. Frenchtown School worked with a professional non-profit theatre company and gave the proceeds from their ticket sales to the theatre whose director coached them and to a senior home near the school.

Bartle also adopted a senior home. The students and their teacher went every week to the nursing home. They interviewed the residents and wrote up

their stories. This helped the seniors feel heard. Then they created a special magazine called "SeniorZine" as in Magazine and then the class raised money for a magazine rack to give to the senior center. At each step, YIP attempts to support the teachers in ways that are most relevant to their projects. For example, in the project I just mentioned, we coached the teachers at our Teacher Orientation, to provide sensitivity training for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at the seniors might not hear or see as well or that it might be difficult or painful for them to walk. We suggested the students put pebbles in their shoes to experience what it might be like to have pain in their feet or cream on glasses to show how hard it may be for some to see.

As a last example, Clara Barton, a K-6<sup>th</sup> School, won a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Best Practices" award for their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Seven years ago they adopted the pediatric wing of a world renowned Heart and Lung Hospital for their annual projects. The hospital serves everyone for free.

The first year, 60 students, in two classes, broke up into groups of four and made beautiful oversized books for the patients. They used their writing skills and the students had a chance to be creative and illustrate their books. There was a "Meet the Author" section at the end and a dedication in the front using different alphabets.

The teachers saw that the students' writing improved but wanted to emphasize their reading the next year. They wrote a persuasive letter, as a class, and received a donation of books from a scholastic publishing company; two copies of each book. They contacted a tape recorder company and got tape recorders and tapes donated. They read the books on tape and gave the new books, the tapes and recorders to the pediatric wing.

The next year, there were so many talented artists in the fourth grade, the teachers decided to ask the students to read and illustrate each of the books that the previous class had given to the hospital. Each illustration was matted and framed. The next year, the children made pillows and the next they decorated canvas bags with fabric paint and filled each bag with presents they made. Every Friday afternoon, at Clara Barton School, is Philanthropy time. Because of all of these efforts, the pediatric wing has been dedicated to the Fourth Graders at Clara Barton.

While we would like to reach all of the students across the State, Country and Globe, one primary goal of our program is retention of classes so they can

build on results year after year. Another is to introduce children who don't have enough, and who are often on the receiving end of donations, to their own potential and power to make a difference in their own communities and beyond – even as young as they are and even without funds to give away. We feel that the YIP program is especially important for at-risk youth. Some children may be exposed to philanthropy by their parents, a religious affiliation or, in America, by participation with programs like the Girl Scouts or Boy Scouts. We want to reach those who don't know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be civically engaged and productive.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we have found that children who come from wealthy families often need a program like YIP as much as their underprivileged counterparts. They need the connection and the great feeling that comes from directly helping others. Children have expressed how good it feels to help others and they often report that they had not felt that they really had the chance to help others before the YIP experience. Many families give financial donations to charity, but don't necessarily engage their children in the process or think about the acts of generosity, so YIP is a program with a trickle up effect that helps educate the parents too.

The Trickle Up effect is meaningful in America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that anyone can be a philanthropist with or without large sums of money to give away. There are many Americans who think philanthropy is just for those who have millions of dollars to give away and they often don't know that they are philanthropists in their own rights.

I have provided several charts and explanations in the power point for your information. The slides provide some high level information about programs in our country. The Beautiful foundation is already familiar with some and has developed partnerships along with others that have emerged as well.

Philanthropy in the U.S. is tracked each year with a one year lag, so we are looking at the 2005 numbers that came out this past June. Philanthropy in our country is up to \$260.28 Billion from four primary sources: Individuals, corporations, foundations and bequests—when people leave money to philanthropic causes in their wills. It is 2% of our gross national product.

My experience is that most average Americans I meet think that the lion's share of philanthropic support comes from foundations and corporations when in fact it comes from individuals (I am referring to guesses made before Warren Buffet's munificent contribution to our society and world).

It is often surprising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o learn the percentages of contributions from each of the four groups mentioned. I have included copies of the pie charts for you to see the sources of support and the recipient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people know that philanthropy exists but often the focus is on the mega-gifts like Warren Buffet's gift to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The perception, therefore, is that small gifts don't count and that philanthropy is just for The Rich; a "them" and "us" perspective that regular working people aren't philanthropists. Philanthropy educators want to help people realize that their own gifts contribute to the whole and are important. We would do well to follow your good lead and institute a national 1% Sharing Program.

One of the main tenets of our Youth In Philanthropy Movement is that children as young as they are, have the potential and the power to make a difference in their own communities and beyond and ideally to help change the world and create a more peaceful world where we can all work together.

In 2000, the Chairman of AFP, Stephen Batson, Ph.D., CFRE, declared Youth in Philanthropy to be one of three strategic initiatives of the association along with globalization and diversity. He formed our Youth in Philanthropy Task Force. Part of our work, as we defined it, was to create a Resource on the web that would provide guidance about philanthropy education and what should be taught in youth philanthropy programs. Kathy Agard, Ph.D., a founding board member of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and the leader of Learning to Give, at the time, sat on the Task Force and oversaw the creation of the content.

Simultaneously, we began to spread the word to AFP chapters since we have a large global network. We created a survey to discover what was happening in chapters especially around our country for youth philanthropy. We focused on outreach possibilities and Public Relations. We were eager to see YIP be embraced fully by AFP. Our Task Force has been comprised primarily of AFP member representatives but since 2002, we have had representatives from several high level K-12 programs in our country.

Members of the Task Force include my esteemed colleague, Dwight Burlingame, Ph.D, from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 who is helping Japan institute philanthropy education countrywide. Derrick Feldman represents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which is in nine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Indonesia and will begin its formal partnership with the Beautiful Foundation in March 2007. The League engages whole schools in philanthropic activities for

which they can earn points. Schools compete against schools for the opportunity to win money they can contribute to a cause.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with whom the Beautiful Foundation will have an official partnership beginning in March.

Other AFP Task Force member organizations are Learning to Give, Community Partnerships with Youth, Inc., The 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of Indiana and others which can be found in your handout.

At the College/ University Level:

Two years ago, to provide training for those who may be poised to come into the fundraising profession or work for philanthropic causes, AFP created Collegiate Chapters. Collegiate Chapters are official AFP chapters run by and f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Each Collegiate Chapter is affiliated with regular AFP chapters with adult AFP members as mentors.

In addition to AFP'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ollege aged students, the American Humanics Program is a national alliance of colleges, universities and non-profits whose mission is to educate, prepare and certify professionals to strengthen and lead nonprofit organizations. American Humanics has academic programs in place at nearly 75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Humanics works with nonprofit partners to fill the workforce with well educated/ trained young people who are actively choosing to work at nonprofit organizations. They can be found at [www.humanics.org](http://www.humanics.org).

As one last example, I mentioned parallel tracks at the beginning for Mr. Park Won Soon's work and the Beautiful Foundation, with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s predictions and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then NSFRE's launch of its YIP programs. Another parallel course, just a few years later, in 1995 was some new research conducted by Roseanne Mirabella, Ph.D. and Naomi Wish, Ph.D., Co-Directors of the Center for Community Research and Engagement at Seton Hall University and funded by the W. K. Kellogg Foundation.

The Study is titled, University-Based Educational Programs in Nonprofit Management and Philanthropic Studies: A Ten Year Review and Projections of Future Trends. In a new paper Dr. Mirabella is about to publish, she writes,

"From the mid 1990s to the present, there has been a tremend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involved in the education

of nonprofit managers. Currently, 240 universities and colleges provide courses in nonprofit management education across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ports on this growth through a compilation of the most recent data available from an electronic database accessible from the World Wide Web. The author maps the growth of the field over the past ten years by type of program: graduate (including Ph.D.), undergraduate, continuing education, and noncredit. Based on an analysis of developments and changes over the past ten years, the author will look towards the future of nonprofit management education and philanthropy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Dr. Mirabella and her colleague, Naomi Wish, Ph.D., conducted a ten year review of the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with non-profit education programs at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with delineation of the types of programs. A google search with her name or through the Seton Hall University site will show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are at an especially exciting time in the evolution of the Youth Philanthropy Movement. Four years ago,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 devoted its annual Symposium to Youth and Philanthropy. People from 32 U.S. states and five countries attended. It was exciting for us all to meet so many other people interested in youth philanthropy and determined to see it succeed. At that point, we still had some concern about whether the values of giving and serving were being transmitted. But 9/11 had occurred with its tremendous outpouring from children and adults. Our national psyche changed and at the same time, pioneers of the Youth Philanthropy Movement, in coming together thanks to the interest of the eminent Center on Philanthropy, saw that we really had a ground swell of interest and enthusiasm for how to teach our children to be humane and to be civically engaged for the good of society.

Judith Nichols, Ph.D created a chart in your handout that shows four generations, their values and priorities. My parents generation, she suggests, was interested in the good of the whole. They were civically minded. My generation, called Baby-Boomers born after the second World War, Dr. Nichols says is more "me" focused than "we" focused. The next generation is interested in "us" she says and how we can fix our society. Just in the last few years, Judith Nichols newest projection i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has the same values as their great grandparents but on a global scale thanks to the internet.

Bob Carter, CFRE, President of Ketchum, one of our country's largest fundraising consulting firms, is Chairman of the E-Philanthropy Foundation Board. Bob spoke recently in NY at the Harvard Club about globalization and that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had an incredible impact on the sights of the individual donor....

The ability to connect donors, personally, with those they are serving is due in great part to the internet". I read that around 90% of the Beautiful Foundation's donors give via the internet. Bob connected the fact that communication is different than it was 20 years ago and so is philanthropy with e-philanthropy growing at a rapid pace.

In 2005, an estimated \$4.5 billion was given online. Humanitarian relief in the Middle East topped \$125 million and is climbing. All this money was raised in 30 days by the International Red Cross through the power of the internet to solicit and receive donations.

Where is the Movement today as opposed to four years ago: An important observation, however, was made by Irv Katz from the National Human Assembly in Washington, DC when he gave a keynote address at the Center on Philanthropy's Symposium. He noted that we were all in parallel play; as young children play before they become socially aware. My colleague, Pat Bjorhovde, CFRE, my predecessor as chair of the AFP YIP Task Force, proposed there should be one umbrella organization under which all the Youth Philanthropy organizations could come together. Subsequently, it was determined that AFP would organize a second gathering so that we could move together from parallel play to collaboration.

We started planning the gathering about three years ago and finally, after all the planning, and thanks to the generosity of the Edyth Bush Charitable Foundation in Florida, next week-end, November 12 -14, 2006, 45 of us will meet in Winter Park, Florida at Rollins College's Center for Nonprofit Management, to take our enthusiasm and experience to a new level with an AFP convened Youth in Philanthropy Summit. Dwight Burlingame, Pat Bjorhovde and I will write a WhitePaper that we will be eager to share with all of you and ideally we will have ideas for a new community model for youth philanthropy collaboration and we will be eager to hear your ideas on this subject as well.

In the meantime, the experience of being invited to Seoul, to your Symposium has inspired me to suggest to my colleagues that our next Summit be international and with you as honored guests.

Thank you.

## **부록. Members of the AFP YIP Task Force**

Members of the AFP YIP Task Force, from high level youth philanthropy organizations outside AFP include my esteemed colleague, Dwight Burlingame, Ph.D, from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 who is helping Japan institute philanthropy education countrywide. Derrick Feldman represents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which is in nine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Indonesia and will begin its formal partnership with the Beautiful Foundation in March 2007. The League engages whole schools, whole districts, in philanthropic activities and lessons, for which they can earn points. Schools compete against schools for the opportunity to win money they can contribute to a cause.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will have an official partnership with the Beautiful Foundation beginning in March.

**Learning to Give:** An educational initiative that seeks to enhance and maintain a civil society, Learning to Give offers lesson plans, activities, and resources to educate youth about the power of philanthropy (sharing time, talent and treasure). Teachers, parents, youth workers, religious instructors, communities and students will find hundreds of valuable ideas.

### **Community Partnerships with Youth, Inc.:**

Philanthropy, the thoughtful, ongoing, intentional giving of one's time, talent and treasure for the common good. Isn't this something that every youth can do! The Youth as Philanthropy set of materials help guide youth from age 6 to 18 on how to develop those important "habits of giving and serving."The material helps young people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sider their own values and gifts; and move into their communities operating from their hearts. Go to [www.cpyinc.org](http://www.cpyinc.org) to learn more about these dynamic materials and training opportunities or call 317-875-5756.

Community Partnerships with Youth, Inc. is also known as Leadership and Renewal Outfitters. They train leaders, help students explore youth work as a career, provide materials, "guide people to learn who we are and what we want to do", and write publications to help their participants stay connected.

The 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of Indiana - YPII knows and admires the work of the Beautiful Foundation. It is a national network of over 40 organizations with the common goal of **engaging youth** in giving and serving. They say, "We like to say we help **grow lifelong philanthropists** who give their time, talent and treasure for the common good. In doing so, we encourage young Hoosiers to be aware, become educated and **actively involved** in philanthropy within their local communities.



We do this by:

- Promoting youth philanthropy through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
- Supporting giving and serving among young people through **training, education and resources** and
- Sustaining youth philanthropic efforts in ways that **meet local community needs**.

[www.ypin.org](http://www.ypin.org) "

We have just this year learned about **Common Cents**—another organization that came about in 1991— **and the Penny Harvest**, in New York City, is a K–8 educational, not–for–profit organization that specializes in creating and managing service learning programs for young people. The most popular and best–known program is the Penny Harvest, the largest child philanthropy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The Ford Foundation, one of our country’ s largest foundations has given Common Cents a major grant of over a million dollars to expand the program nationally. Common Cents programs include the Student Community Action Fund, their high school leadership council and Near Peer, their mentoring program. Their website is [www.commoncents.org](http://www.commoncents.org) .

## **부록.**

#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of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New Jersey Chapter*

*"The spirit of giving has its source in the heart."*

*Anonymous*

### Program Goals

- To develop awareness of the human condition locally,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 To teach students about philanthropy and what it means in today' s world;
- To inspire a sense of personal responsibility for activities that will further the common good and nurture a new generation of philanthropists.

### Program Objectives

-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philanthropy that will enhance the K–8 Core Curriculum;
- To offer students an opportunity to apply what they learn in the classroom in a tangible community service and/or fund raising project they will select, plan and implement; to make a difference 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 Definition of Philanthropy Used by AFP–NJ YIP Program

Webster' s New World Dictionary defines philanthropy as "the desire to help mankind," "benevolence toward the whole human family." Its two roots, from the Greek philein "to love" and anthropos "man,"have been translated as "love of humankind."

For the purpose of AFP–NJ' s Program, philanthropy is being defined as:

*"Voluntary Action for the Common Good that can be expressed as voluntary giving, voluntary service and/or voluntary association to help others live a better life."*

<b>Voluntary Giving</b>	Sharing money and/or material resources with others
<b>Voluntary Service</b>	Sharing time and talents (or work and wisdom) to help others
<b><i>Voluntary</i> Association</b>	Gathering together in a group to address the problems of society, to fulfill the needs of society or to enhance the lives of others

The definition was originally from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 History of AFP–NJ' s YIP Program

In 1994, as its contribution to the annual celebration of National Philanthropy Day in November, the New Jersey Chapter of AFP, then NSFRE, with support from Bank of America, decided to encourag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to contemplate philanthropy. The Chapter initiated a contest for individual fourth grade students to present their ideas of philanthropy in an essay, a drawing or a song. The response was incredible. Teachers appreciated the importance of philanthropy in our culture, embraced the project and communicated excitement to their students.

In 1995, the YIP Committee recognized the need to provide teachers with resources for understanding and teaching about philanthropy and how it extends beyond general acts of kindness. Thanks to the continuing generosity of Bank of America, the program and the contest expanded to whole classes, or small groups within classes, rather than individual students, to make it even more meaningful to teachers and students, as well as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The motto, "Together We Can Make A Difference" was adopted. A special reception was held for all participating students, their teachers and families.

The Youth In Philanthropy (YIP) Committee developed a Teacher Resource Guide to help teachers introduce philanthropy in the classroom as its own subject or to integrate it into the existing curricula. A key objective was to offer students the opportunity to design and implement a philanthropic project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or organizations, in their own community, or the global community, and to have their choice of project(s) be based upon what they talked about and learned in the classroom. For the contest, they were asked to submit proposals for the projects they wanted to accomplish and then to complete them.

The 1996–1997 Program became purely education based. Fourth grades across New Jersey had the academic year to learn about philanthropy and to design and implement their projects. In May and June, 1997, Youth In Philanthropy Committee members with others from NJ–AFP, and Bank of America Managers, celebrated the accomplishments of classes that completed projects with special ceremonies at each school. The Chapter provided personalized certificates for each student that participated, a proclamation from then New Jersey Governor Whitman for the teachers and students and a gift for each school library.

With the 1997–1998 Program came innovations such as in–person, day long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and a page on New Jersey Public Television' s website. By this point YIP had grown to include elementary grades from K–6. In

the Spring of 1998, the New Jersey Chapter' s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won the National Society of Fund Raising Executives' prestigious Founder' s Award for Public Service. The award, which is presented to one chapter each year, is based on the:

- Abilit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eir employees and philanthropy
- Innovation and creative approaches to solving a problem and meeting needs in the community
- Imaginative use of available resources
- Strong evaluation component
- Potential as a model for replication by other organizations or groups

The Program' s fifth anniversary was in 1998–1999. Schools with grades 6–8 asked to attend and were welcomed into the Program making it truly a program for all elementary school children, K–8, in New Jersey. The YIP Program created its own website that year, for the first time, and provided a toll-free number. In addition, YIP developed a relationship with Seton Hall University to provide teachers with Continuing Education Units (CEU' s) for participation in the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During the sixth year, 1999–2000, YIP sought to begin to tie the suggested methods and activities provided to teachers to New Jersey' s Core Curriculum Standards and to involve at least 2,000–3,000 children and their educators in the Program each year. A partnership was forged with the Nonprofit Sector Resource Institute, a project of the Center for Public Service at Seton Hall University in New Jersey whereby teachers could earn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CEUs) for participation in AFP–NJ' s YIP Program.

As part of the YIP Committee' s continuing effort to fine tune and develop the Program, innovations in 2000–2001 included guest speakers from statewide non-profits at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provision of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Professional Improvement Program (PIP) hours for teachers that participate in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with YIP as a registered service provider. In the Fall, YIP was invited to present at Fairleigh Dickenson University' s first State-wide Character Education Conference and to participate in a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Conference. Also, YIP was invited to join a national Youth In Philanthropy Task Force. In 2001, Clara Barton School

in Bordentown, NJ won a NJ Department of Education "Best Practices" Award for their Youth In Philanthropy projects.

Up until 2001, for six years, Bank of America, as a sole sponsor, made it possible for the Program to thrive and develop. In 2001, ETHICON joined Bank of America as a major sponsor and offered invaluable ideas and introductions that helped YIP advance to a whole new level. The Program began to receive more publicity than ever especially for individual school projects across the State. Rotary International asked to collaborate for their elementary ReAct clubs. YIP was invited to present to the Boy Scouts, Mothers & More International and Virtua Health System's youth group, and to be evaluated as part of a Master's Thesis on Youth In Philanthropy curricula nationwide.

In 2002, YIP's Chair was invited to contribute a chapter about the New Jersey YIP program for a book on Youth In Philanthropy curricula, CREATING TOMORROW'S PHILANTHROPISTS – Curriculum Development for Youth, edited by Patricia O. Bjorhovde, CFRE and to participate in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s symposium on Youth and Philanthropy with representatives from 32 states and five countries including the USA. The New Jersey Chapter program issued over 3,200 certificates of recognition in 2002 to New Jersey students bringing the count to over 20,000 students that have gone through the program. Johnson & Johnson contributed financial and in-kind support for the program. YIP's Chair was offered the chairmanship of international AFP's Youth in Philanthropy Task Force. Youth In Philanthropy had truly begun to be an international movement.

In 2002–2003 and 2003–2004, Bank of America gave a grant for YIP to work with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to have philanthropy infused into revisions to the State's Core Curriculum Cumulative Progress Indicators. Also, YIP formalized its efforts to reach out to schools in New Jersey's poorest districts to help youth, often on the receiving end of the social structure, to understand their own potential and power to give back to their communities and make a difference for the common good.

The Tenth Anniversary of YIP was celebrated in 2003– 2004 with a special Fair on April 27, 2004 at the New Jersey Convention and Exposition Center. Over 500 students and over 200 adults participated in the day long event that included booths for each class to display the results of their philanthropy, the opportunity to view the booths of all the other schools, interactive games, discussion groups about philanthropy, lunch and two sing-alongs with noted singer/songwriter John Farrell

who wrote a special song for the occasion. It was a wonderful day that gave the children a sense of being part of something much larger than their own class, school or community; a Movement in our country of children working to make a difference for the common good.

**In Autumn 2004, New Jersey's YIP won AFP's Founder's Award for Public Service for a second time for its regular program and in recognition of 10<sup>th</sup> Anniversary Philanthropy Fair**

**That same year, Washington Elementary, a NJ YIP school, nominated by the New Jersey Chapter, won international AFP's first Youth in Philanthropy Award in the K-12 category.** It was especially exciting since the winning school is K-4 and does something philanthropic every day. Five children, their parents, school principal and teachers traveled to Baltimore, Maryland to receive the awar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ndraising.

Members of the Youth In Philanthropy Committee continue to train teachers, visit classes to speak about philanthropy under the program's Speakers-in-the-Schools program, and celebrate student accomplishments at the end of the school year. Committee members are volunteers that subscribe to the AFP Code of Ethics and who believe in the Donor Bill of Rights.

## Sample List of Past Student Sample List of Past Student AFP–NJ Youth In Philanthropy Projects Youth In Philanthropy Projects

- Whole school and individual class responses to September 11 ranging from fund raisers to purchase equipment and protective gear for fire fighters to collections of gloves, socks and long underwear, to water and food. Some schools collected teddy bears and other offerings of love for the children and families of victims. Several raised thousands of dollars for the American Red Cross and other relief funds.
- There was the same outpouring of support for victims of the Tsunami and Hurricane Katrina
- Service–learning with a local nursing home including: Sensitivity training sessions, gift–making activities, fund raising for the Nursing Home, visits with the seniors, interviews with residents that students wrote up, gifts of treats prepared by parents, and entertainment for the seniors by the students
- Help for babies with AIDS: One class learned how to crochet and made blankets for babies with AIDS; another collected baby food and disposable diapers for a hospital in New Jersey that has a special unit for babies with AIDS; then they designed and made quilts for babies with AIDS with the help of the PTA
- American Heart Association – Jump Rope for Heart. Students solicit sponsors who will provide contributions based on how long they jump rope. They jump as long as they are able.
- Three classes of fourth grade students wrote and illustrated beautiful oversized books for the Pediatric Unit of Deborah Hospital. Four to five students worked on each and included dedications in ten languages, with the alphabet of the languages, and a "meet the Author" section. The next year they secured donations of books, tapes and three tape players, read the books into the tapes and donated all to the Pediatric Unit at Deborah. In year three, they illustrated the books they had read and donated the framed illustrations to the same unit. The School won a DOE "Best Practices" award for their efforts



- Another school raised money to buy books from Borders for the Bristol–Myers Squibb Children’s Hospital at Robert Wood Johnson University Hospital
- Raised money for the Institute for Children with Cancer and Blood Disorders in New Brunswick from ticket sales to a performance of an original opera they wrote, produced and performed after they did a workshop with the New York Metropolitan Opera.
- Raised money to restore the Swan Boat of an old lake that is being revitalized as a tourist attraction. They wrote persuasive letters to have Beanie Babies donated. They sold the Beanie Babies and donated the proceeds
- Collected car and truck loads of acorns for the New Jersey Forestry Service and planted saplings donated by the Forestry Service
- A penny drive for the Eagle Fund to adopt a pair of breeding eagles for a year
- A penny drive for a local animal shelter combined with other fund raising efforts
- Collections of towels, blankets, bleach and food for local animal shelters
- Several schools mobilized children, parents and faculty to work together to create Thanksgiving, Christmas and Easter baskets, with all the trimmings and gift certificates too, for less fortunate families. Table decorations were created for the local Community Senior Citizen Center.
- Toy collections for the Marine Corps Toys for Tots distribution, and for other distributing programs for children in foster care programs
-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crafted beautiful quilts for senior citizens from Buttonwood Hospital
- Senior friendship baskets for local seniors at a nearby home
- Valentines for Vets for the local Veterans’ Hospital and other gifts for Veterans

- Students selected published literature, created poems, made puppets, wrote plays, and provided "hands-on" reading and writing materials to encourage love of reading for students at another school that did not have a school library, or the resources to buy books but wanted to create a library
- Weekly food collection for a local New Jersey soup kitchen that gives food to homeless people
- Year long collection of books for children in need for their "Sharing Books and Caring Program" along with personal outreach to less fortunate children at other schools and at Tomorrow' s Children' s Hospital
- Made Christmas tree ornaments and decorated Christmas trees at local senior homes; made valentine decorations and cards for residents; created personalized birthday cards for the residents and hospitality cards for new residents; made Easter baskets and filled them with treats for seniors